

돈가스도 만두도... “기름없이 공기로 건강하게 튀겨요”

에어프라이어용 제품 잇단 출시

신세계푸드 ‘올반 에어콧’ 론칭 타코+군만두 ‘토마토살사 타코만두’

동원F&B 퀴진 에어크리스피 3종 10분 조리, 겉은 ‘바삭’ 속은 ‘촉촉’

CJ제일제당 HMR 브랜드 ‘고메’ 통등심·모짜렐라·멘치 돈카츠



CJ제일제당 고메 돈카츠 3종(왼쪽)과 퀴진 에어 크리스피 3종.

/CJ제일제당·동원F&B

주방 필수가전으로 등극한 에어프라이어 인기가 치솟으며, 식품업체가 관련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7일 옥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에어프라이어 판매 비중은 2% 불과했지만 2015년 4%, 2016년 5%, 2017년 18%, 2018년 38%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4년 대비 44배(4309%)나 급증했다.

기름 없이 건강한 튀김요리를 내세워

인 가구와 젊은 주부층에게 수요가 높았던 에어프라이어는 최근 생선구이, 치킨요리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업체는 에어프라이어 보급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CJ제일제당, 신세계푸드, 동원F&B 등이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에 특화된 냉동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에어프라이어 전용 가정간편식 브랜드 ‘올반 에어콧’을 론칭했다. 신세계푸드는 ‘올반 에어콧’을 통해 에어프라이어 조리에 최적화된 공법

을 적용한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푸드는 ‘올반 에어콧’의 첫 제품으로 ‘토마토살사 타코만두’를 출시했다. 멕시코 전통 요리 ‘타코’와 군만두를 결합해 만든 퓨전 가정간편식이다.

동원F&B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식품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퀴진 에어 크리스피’ 3종을 출시했다. ‘퀴진 에어 크리스피’ 3종은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제품을 넣고 8~10분간 조리하면

기름 없이도 바삭한 튀김 요리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퀴진 에어 크리스피 튀김만두’는 두 번 튀겨내어 만두피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해 맛있는 식감을 자랑한다.

CJ제일제당은 HMR 브랜드 ‘고메’를 앞세워 냉동 돈가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에어프라이어 특화된 ‘고메 바삭튀겨낸 돈카츠’를 출시했다. 제품은 ‘통등심 돈카츠’, ‘모짜렐라 돈카츠’, ‘멘치 돈카츠’ 등 총 3종이다. 일식 돈가스 전문점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해 집에서 간편하게 외식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메 핫도그의 올해 1~5월 누적 매출은 약 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성장했다.

아워홈은 에어프라이어 전용 베이커리 제품 2종을 출시했다. ‘에어 허니버터브레드’는 칼집을 낸 통식빵에 꿀과 버터를 발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올반 에어콧 토마토살사 타코만두.

/신세계푸드

‘피마늘 1개 100원’ 롯데마트, 농가 돕는다

마늘값 폭락에 일주일간 할인행사

마늘 가격 폭락에 롯데마트가 농가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롯데마트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피마늘(1개)’을 100원에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늘 가격 폭락에 힘겨워 하는 농가의 재고 소진을 도와 마늘 가격 정상화를 위해 기획됐다.

최근 마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7월 한달간 ‘피마늘(난지/10kg)’의

도매 가격은 3만8983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6009원 대비 3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들어서도 가격 하락폭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마늘 가격 하락폭이 큰 것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년 마늘 재배 시기에 평온했던 날씨로 작황이 매우 좋았고, 지난 수년간 마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마늘 재배 농가들이 늘어난 것도 생산량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쿠어스 라이트, 여름 바캉스패키지 출시

11번가서 패키지별 500세트 판매

롯데주류가 수입하는 ‘쿠어스 라이트’가 다양한 휴가 아이템이 포함된 여름 바캉스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휴가 스타일을 고려해 ‘쿠어스 인 더 시티’, ‘쿠어스 인 네이처’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되고,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오는 8일 패키지 별로 각 500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쿠어스 인 더 시티’ 패키지는 도심 속 호텔에서 여유로운 호캉스를 즐기고 싶은 고객들을 위한 상품으로 시원한



쿠어스 라이트 바캉스 패키지 ‘쿠어스 인 더 시티’

/롯데주류

맥주를 따르면 색이 변하는 ‘쿠어스 라이트 변온잔’과 스마트폰 방수 케이스, 쿠어스 로고가 새겨진 비치타월로 구성돼 있다.

/박인용 기자

크리스피 크림 ‘오리지널 필드 2종’ 출시

크리스피 크림이 영국과 필리핀 등 여러 국가 SNS에서 고객들의 큰 성원을 받은 ‘오리지널 필드’ 2종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리지널 필드’ 2종은 부드럽고 달콤한



리지널 글레이즈드에 달콤한 누텔라초코 크림이 가득 충전된 ‘오리지널 초컬릿 필드’와 부드러운 크림치즈 필링이 가득 충전된 ‘오리지널 크림치즈 필드’이다. 가격은 각 1800원이다.

/박인용 기자

한우, 냉동보단 ‘냉장’ 구이용세트 인기

‘여름추석’ 선물세트 트렌드

이마트, 냉장한우 1.5만세트 준비 장수·거창 등 사과 신규산지 개발 시세상승 굴비, 주요품목 가격 동결

‘여름 추석’이라 불릴 정도로 올해 추석이 일찍 찾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추석 선물세트 트렌드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마트는 올해 추석을 40여 일 앞두고 주요 신선식품 선물세트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우는 냉동 선물세트보다 냉장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과일도 수급 차질로 인한 물량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한우의 경우 9월 초·중순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냉장 구이용 한우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냉장한우 선물세트 비중을 늘렸다. 냉장한우 선물세트를 전년 추석 대비 10% 늘어난 1만 5000 세트 가량 마련한 반면, 냉동한우 선물세트는 준비물량을 20% 가량 줄였다.

올해 이마트의 대표 상품으로는 각종 특수부위를 구이로 즐길 수 있는 ‘한우 미각세트(치마살/부채살 각 0.6kg, 안창살 0.4kg, 토시살/제비추리 각 0.2kg)’가 있다. 300세트 한정으로 카드행사가 27만 원(정사가 30만 원)에 선보인다.

추석 선물세트의 대명사인 과일은 5년 만에 찾아온 이른 추석으로 물량 확보 및 가격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력 사과 품종인 ‘홍로’는 일반적으로 9월 초나 돼야 본격적인 출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는 선물세트용 대과를 확보하려는 유통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추석이 다가올수록 사과 시세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이마트는 기존 사과 산지인 영주, 안동 이외에도 무주 등 신규 산지를 개발하는 동시에, 다른 산지보다 빠른 8월 말에 홍로가 출하되는 평균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장수, 거창 등지 고지대 사과 농가로부터 물량



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도 선물세트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마트는 배 선물세트 상품 가짓수를 예년에 비해 줄인 반면, 고객들이 선호하는 인기 선물세트의 물량을 대폭 늘려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사과, 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최근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를 메인으로 한 ‘프리미엄 샤인세트(샤인머스켓 2송이, 머스크 마른 1통)’와 ‘태국 망고 세트(망고 10입 이내)’가 있다.

수산물 선물세트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 품목인 굴비는 여황이 부진해 산지 시세가 올랐지만 주요 품목 가격을 동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백 ‘재활용+디자인’ 친환경소비 앞장

엘리트 플레이, 월렛 6종 제작·판매

롯데백화점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위한 색다른 시도를 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8일부터 영권템 포러리 자체 브랜드인 ‘엘리트 플레이’에서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업사이클링 제품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 하는 차원을 넘

어 디자인을 가미하고 변형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킨 제품이다.

‘엘리트 플레이’에서 선보였던 17년 S/S(봄여름) 상품들 중 색감이 화려하고 독특한 소재의 의류 6종을 선별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월렛(손지갑)’ 6종으로 재탄생시켰다. 빨강, 파랑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엘리트 플레이 업사이클링 월렛’ 6종은 각 3만 8000원에 1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고객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

/롯데백화점